



한 시연 대기

극단 **열린무대** 13

제2회 교사를 위한 연극 교실
워크숍 공연

황석영 / 원작 이창복 / 연출
이병철, 신창환, 박계해, 김경애
심은희, 강현중 / 출연

1993. 2. 23 (火) ~ 2. 28 (日) 2:00, 5:00
열린소극장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극단 **열린무대** 14

이창복 / 연출
최웅, 안현, 윤선희, 강현중, 심창신
김희정, 김옥성, 최성우 / 출연
1993. 3. 18 (木) ~ 4. 11 (日)
목·금 7시, 토·일 4시, 7시
열린소극장

한씨연대기/ 황석영 원작



황석영의 원작 소설을 토대로 각색된 작품 ‘한씨연대기’는 한영덕이라는 한 개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삽입된 연극이다. 말하자면 역사적 문맥위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평양 김일성대학 산부인과학 교수였던 한영덕은 6·25전쟁의 발발로 대다수가 인민전선으로 동원되어 가는 와중에 평소의 정치투쟁력 및 사상성 미흡을 빌미로 평양에 그대로 남겨져 특별동 담당의사로 일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의사로서의 소명감에 전적으로 성실했던 한영덕은 당의 지시에 개의치 않고 특별동보다 위급한 환자들이 가득한 보통병동 진료에 전념하다가 결국 당에 의해 처형되도록 되나 확인 사살을 못한 인민군의 실수로 기적처럼 살아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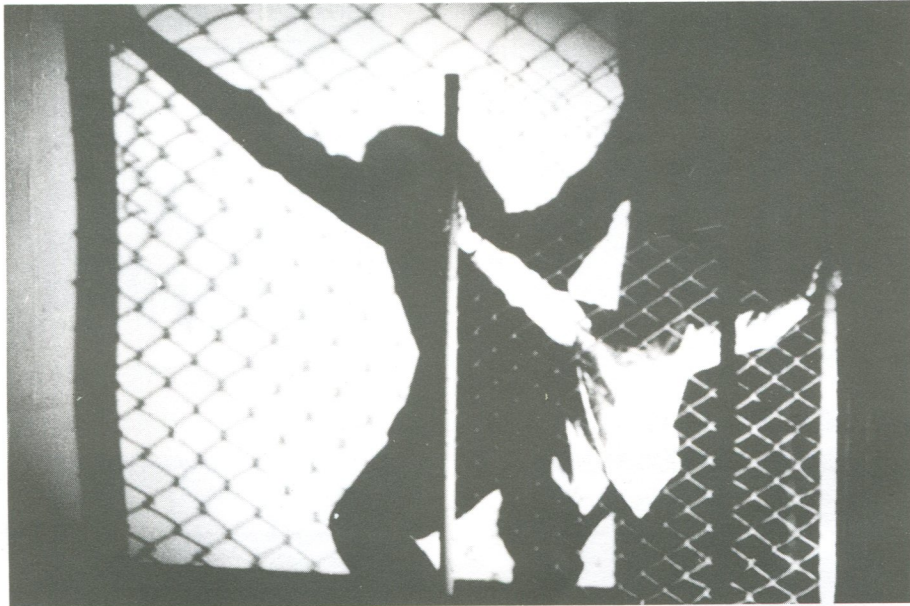
이른바 1·4후퇴 때, 평양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한영덕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여 월남하게 되고, 미군 캠프 지역을 배회했다는 명목으로 첩자로 오인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

그 후, 생계를 위해 무면허의사 박가와 동업하게 되나 취체를 당한 박가가 양심을 품고 당국에 고발한 것과 남한의 정치상황이 맞물려 한영덕은 빨갱이로 내몰리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이남에서 재회한 누이동생, 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기불능의 상태에까지 간 한영덕은 늘그막에 시체를 염해주는 일로 떠돌다가 1972년 서울의 하늘 밑에서 삶을 마감한다.

마지막 장면의 딸아이의 독백에서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무엇이 분단의 상태를 더 고착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한영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무엇이 분단의 상태를 더 고착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한영덕이라는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본 작품은 조명하려 하고 있다.



덕이라는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본 작품은 조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분단상황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 우리의 정치 현실임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안에서는 한영덕 개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의미가 되살아나는 일종의 장치이다.

다큐멘터리 장면은 그 독자적 장면의 분리성에 의거하기보다는 그것과 연결 고리를 이룬 한영덕의 일대기와 더불어 파악될 때 우리들은 보다 정확히 한영덕과 만날 수 있고 한영덕의 선택이 빚어내는 사회적 상황을 자각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한영덕은 고지식하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나선 행동가도 아니다. 그는 그저 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며 생활을 위한 어느 정도의 타협도 감수한 인물이다.

그런 그의 일생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작가가 일차적으로 가진 한영덕이라는 인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강도만큼의 인물의 형상화에 기인하는 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분단 시대를 겪은 우리 민족의 모습이 그 깊숙이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한 성실한 인물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 눈뜨게 됨은 물론 한영덕이라는 한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진한 애정과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울러 6명의 배우가 극중 많은 역을 맡아 변화있게 장면을 표현하므로 관객들은 연극적 재미와 만나게 되는 기회를 또한 가질 것이다.

분단상황

전쟁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교전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를 알아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제일 먼저 희생된 것도 진리가 아닌가 한다.

8·15는 엄격히 따져 해방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우리는 흔히 8·15 해방이라고 부르지만, 이날은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이날을 계기로 남에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국토가 분단되고 외국 군대가 우리민족을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해방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남·북에 각각 미·소군이 진주한 것은 우리 민족의 동의를 얻고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패망시킨 후 자기들 나라 정책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으며, 미·소군은 당초부터 한민족을 해방시킨다든지 민주주의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든지 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 미·소군이 진주하자 남에는 미국의 동조자들이 집권에 참여하고 북에는 소련의 동조자들이 집권에 참여하였으므로 한반도의 분단은 이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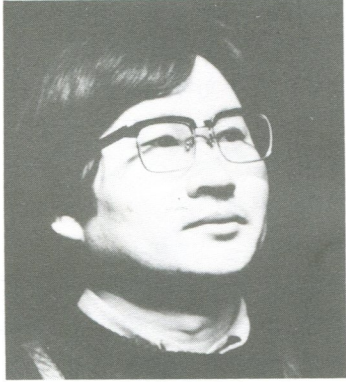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분단에는 민족사 외적 원인도 이와같이 있었지만, 분할점령에 편승하여 분단 국가만이라도 만들어서 집권하려는 민족 내적

분단책동이 더 크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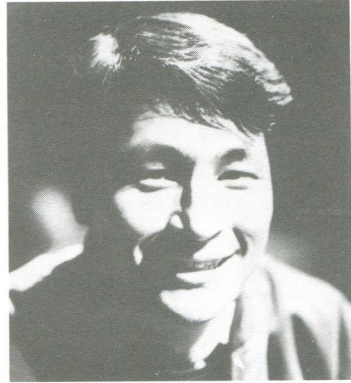
새 정부 수립후에도 친일 세력을 흡수한 집권층은 통일을 실현하여 공산세력과 공존하게 되면 기득권을 위협받게 되므로 철저한 반공을 국시로 삼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자유당 시절에는 북진통일론 이외의 다른 어떤 통일논의도 존재할 수 없었다. 60년대에 들어와 4·19를 거쳐 5·16 군사정권하에서도 반공을 제일로 하는 정책을 고수하였으므로 통일에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후의 정치적 변화에서 표면적인 남북한 화해의 장은 열린 듯하나 어느것도 분단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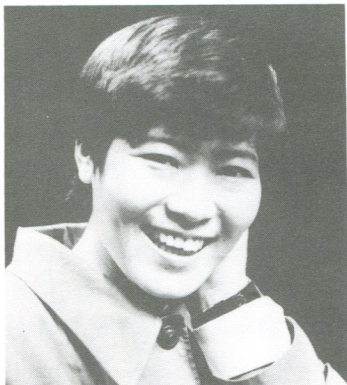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분단을 탄식하면서도 민족통일의 논리를 활발하게 전개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남북대화가 아닌 남북대결의 양상을 보여왔으며, 우리의 통일론이 이데올로기적 논의, 정보의 전문가들만의 논의인 것처럼 국한되어 왔다. 사실상 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당면성은 이처럼 폐쇄적으로 전문가와 통치담당 엘리트만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비공개적인 것으로 시인할 수만은 없는 그 차원 이전의 아주 절박한 우리 민족의 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먼저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병철 / 한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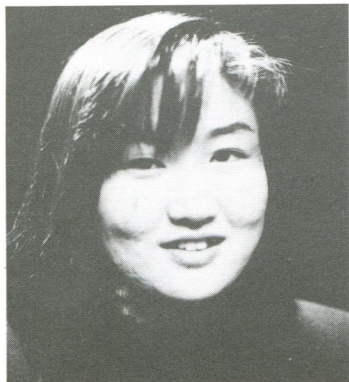
원장·맥아더·박가 /
신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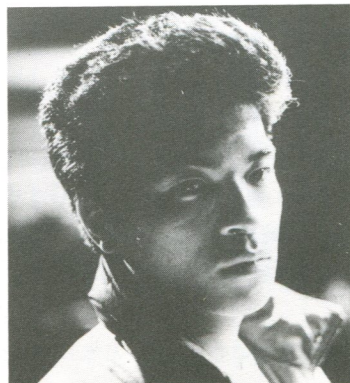
박계해 / 할머니·한영숙



간호원·창빈모·한혜자 /
김경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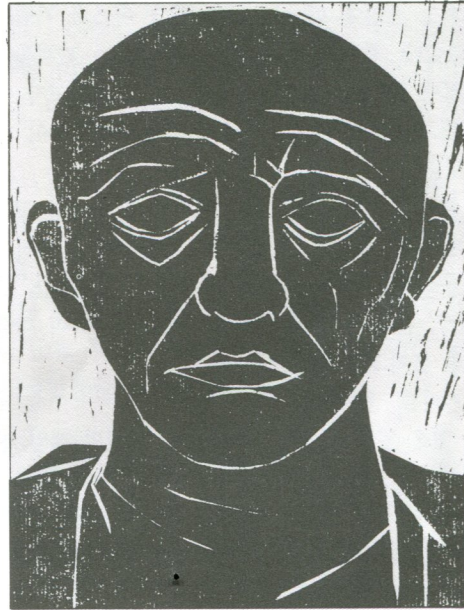


심은희 / 창빈·윤미경



서학준·감시원·심문관 /
강현중 (특별출연)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이창복 / 연출
최웅, 안현, 윤선희, 강현중, 심창신, 최성우, 김희정, 김옥성 / 출연
1993. 3. 18 (木) ~ 4. 11 (日) 목·금 7시, 토·일 4시, 7시
열린소극장

어떤이는 대중 영상 매체가 연극의 존재 근거를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중 영상 매체의 허와 실이 분명해진 지금, 연극은 그 존재 가치가 더 뚜렷해졌다.



연출 / 이창복

두 개의 막을 울리며

‘환자에게 기술을 베푸는 것은 무의미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근거로 한 자유로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 시대를 살다 간 한영덕이란 지식인의 항변이다. ‘자유로운 사랑’을 고집함으로 그는 비극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 분단과 그로 인해 양분화된 이데올로기의 사슬은 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무참히도 짓밟았다.

짜르트르는 그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치를 그가 속한 사회상황에 유익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지식인의 지식이나 명예는 보편적 사회이익에 봉사하지 못하고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의 한정된 계급 이익에만 부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권력과 부의 열매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지식인은 그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영덕은 그들의 열매를 나누어 갖기를 거부한다. 지식인으로서 그의 선택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자유’와 ‘사랑’이었건만 분단과 이데올로기는 그 모든 것을 짓밟고 있다.

‘그의 매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한혜자의 마지막 대사와 함께 젊은 날의 선택으로 인해, 차디찬 0.8평 속에 이데올로기의 사슬로 묶여 있었던 그 시절의 젊은 지식인들을 생각해 본다.

언제부터인가 연극하는 사람들 얘기를 무대화 해보고 싶었다. 대중화된 영상매체의 현저한 발전에도 아직 연극은 제 몫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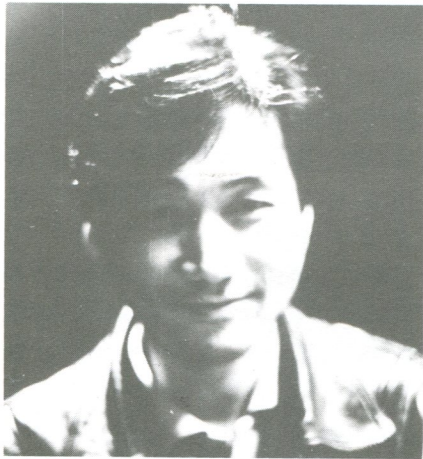
어떤이는 대중 영상매체가 마치 연극의 존재 근거를 빼앗아 버린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중 영상매체의 허와 실이 분명해진 지금, 연극은 그 존재 가치가 더 뚜렷해졌다.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영상 드라마의 편성은 누가 생각해도 뻔하다. 인간사의 분명한 가치를 논하는 드라마가 안방에 누워서 리모콘을 누르는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둘 수 없지 않은가?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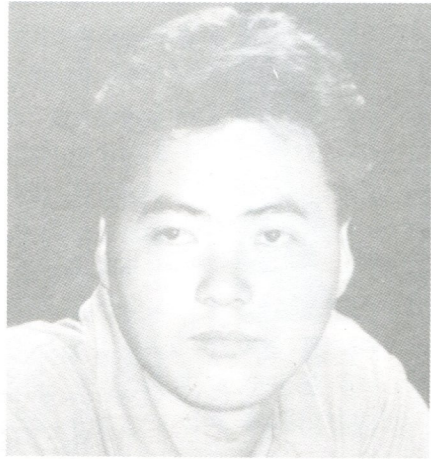
삶의 가치를 찾아 그 가치를 관객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려는 노력, 이것은 더욱이 연극인들에게 필요한 점이다. 문학청년적 순수함과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 소주 한 병, 떨치 몇 마리로도 사랑과 낭만을 노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에 담고 싶었다.

열린무대 3년의 작업이 우리 역사의 무거운 무게를 다룬 작품이었기에 이 작품은 부담없이 시작했었는데 역시 이 작품도 단원들의 땀과 정열,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창단 3년간 극단, 극장을 지킨 단원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의 절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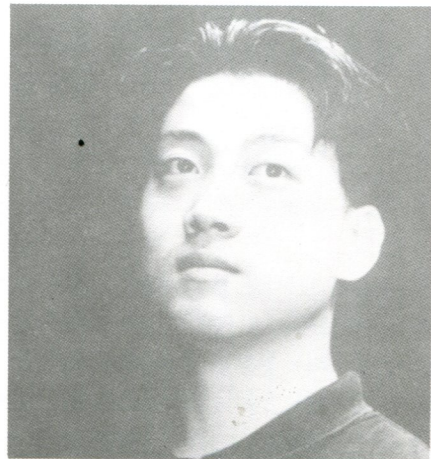
남우1 / 최 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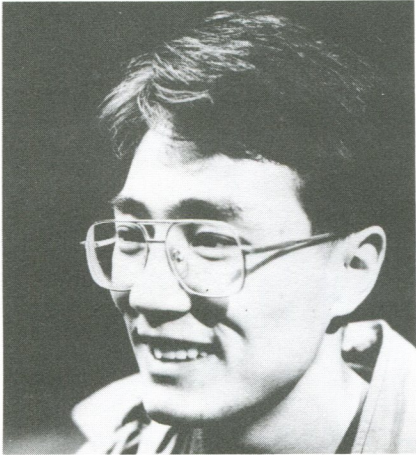
남우2 / 안 현



남우3 / 강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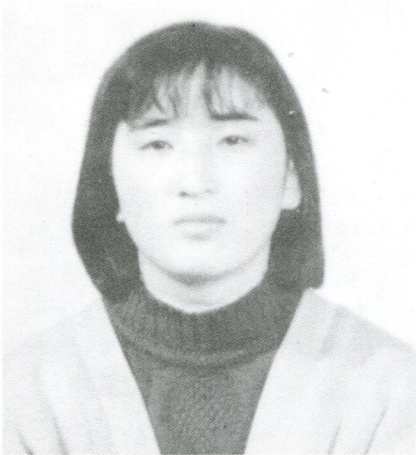
남우4 / 최성우



남우5 / 심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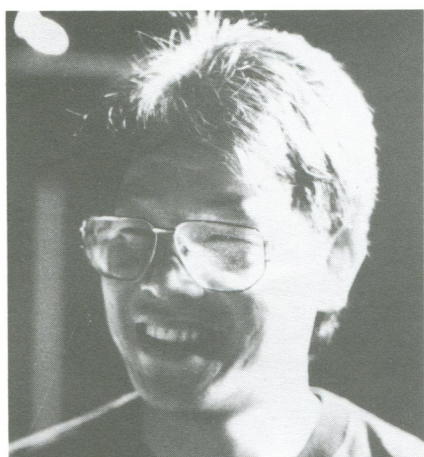
여우1 / 윤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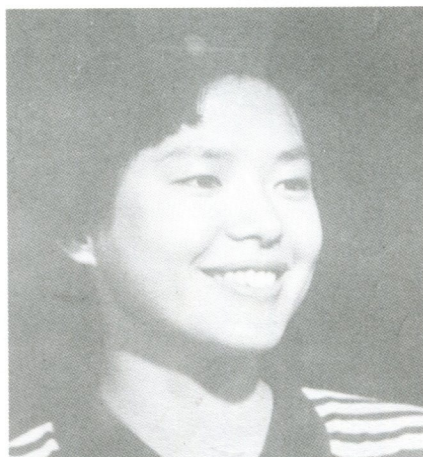
여우2 / 김옥성



여우3 / 김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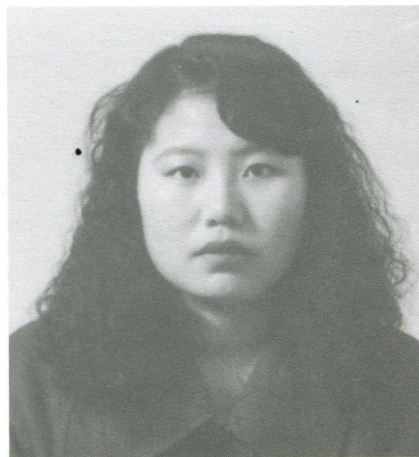
무대장치 / 서석현



음향 / 박미정



조명 / 강현주



진행 / 김여애

나를 무대에 서게 하는 것은

윤선희 / 단원

나를 무대에 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연극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긴장을 한다. 아마 내가 좀더 멋있는 대답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절로 생기기 때문인가 보다. 하지만 내게 있어 연극은 신의 계시나 섬광같은 운명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픈 성장과정 중에 우연히 선택하게 된 매우 평범하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대학에 갓 입학한 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걸돌기만 하던 불안한 시절에 우연히 연극씨클에 가입하였고, 공연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뿔어내던 열정과 일체감,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존재감의 발견으로 인하여 나는 나름대로 대학이라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그렇다. 나를 무대에 서게 하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였다. 불안한 자아의 확인작업으로, 사회의 일인이라는 존재 가치의 발견의 장으로서 나는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육 년 가량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이 첨가되고 삭제되기도 했다. 시작은 개인

적인 이유에서였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것이다. 연극이 나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될 때 내가 하는 작업의 가치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교사 워크숍 『최선생』공연은 이런 깨달음을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확신시켜 주었다.

참가 선생님들과의 여러 경험을 비롯해 극장을 찾은 수많은 학생 관객과 일반 관객 사이에 형성되던 공감대를 무대 위에서 뜨겁게 느끼던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만 같다. 그 느낌은 이제 나를 무대에 서게 하는 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이 되어 버렸다.

개인적 자아의 표현 수단으로서와 공동체적 작업에서 동료 작업자들 사이의 내밀한 교류와 신뢰, 그리고 부끄럽지만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연극인으로서 짝뚱 소명의식은 이제 웬만한 인생의 굴곡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무대에 서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하면서 생겼던 긴장감은 어느새 풀리고 있다.

누가 다시 이런 질문을 내게 하여도 이제는 멋있는 이유를 대기 위해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적을 창조하는 미라클 컴퓨터

- 각종 컴퓨터 기기 판매 및 A/S
- 참신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완비
-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울곡 컴퓨터 도매 상가 102호

M **MIRACLE**
computer

代表 李 鍾 千

Tel 557-0640~1